

---

# 토론 능력과 토론 전략

## Debate Competence and Strategy

장영희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Young-Hee Jang(hyejo@nsu.ac.kr)

---

### 요약

이 연구는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 필요한 토론 능력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또 토론 실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대학생들의 실제 토론 상황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토론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토론 능력은 주어진 문제에 관한 인지적 지식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논쟁을 하고,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토론 구성요소로는 표현 능력, 자료 분석 능력, 논증 능력, 듣기 능력, 조정과 협상 능력 등이 있다.

토론 전략은 준비단계에서의 전략과 실행단계에서의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준비과정에서의 전략으로는 규칙을 준수하며 말하기, 감정이입적 말하기, 역지사지적 말하기, 책임감 있게 말하기 등이 있다. 실행단계에서의 전략은 다시 입론과정과 교차조사과정, 반박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토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서 밝힌 토론 전략들을 실제 토론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토론 능력 | 전략 | 입론 | 반박 | 교차조사 |

### Abstract

This study on strategy and its function in debate offer the materials of education concrete and practical to be able to improve the expression ability and comprehension ability of the students, and can give lots of help to improve the ability of application that can answer quickly in trouble circumstances. The type of strategy in the course of set up the theory are (1) the form of concept definition, (2) the form of solution offer, (3) inductive form and deductive form, (4) the form of example offer. The type of strategy in the course of contradict are (1) the form of soliloquy, (2) the form of claim comparison, (3) the form of partial recognition. The type of strategy in the course of cross examination are (1) the form of question in return and contradict, (2) the form of partial consent contradict.

We believe this study will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negotiation ability and als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improve the leadership of 21-century type i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education.

■ **keyword** : | Debate Competence | Strategy | Set up a Theory | Contradict | Cross Examination |

---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1030-001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11일

접수일자 : 2008년 10월 30일

교신저자 : 장영희, e-mail : hyejo@nsu.ac.kr

## I. 서론

### 1. 연구 목적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 사는 늑은 영양이, 기력도 없고 눈도 귀도 어두운데도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까닭은, 그 곁에 젊은 영양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젊은 영양은 재빨리 이 사실을 늑은 영양에게 알려서, 달아나도록 돕는다. 무적의 코뿔소도 시력이 무척 나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코뿔소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새가 있다. 이 새는 평소엔 코뿔소 살갓에 붙어 곤충을 잡아먹지만, 코뿔소가 위험해지면 위험을 알려준다.

이처럼 서로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근본 원리이다. 우리가 정치를 하던 경영을 하던 교육을 하던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양한 관심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공통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토론이 효과적이다.

토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화법의 형태이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주장의 관철이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견의 일치를 찾는 것이다. 즉,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사고방식과 비판적 정신에 입각한 토론이야말로 개인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토론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론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토론 능력은 효과적인 토론 전략 수립과 활발한 토론

활동을 통해서 신장될 수 있다. 토론은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논증하는 상호 의견 교환 행위로서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복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 상호이해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배우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과 조화를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토론 활동을 통해 토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성숙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함양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본인이 2007학년도 2학기, 2008학년도 1학기 ‘토론과 대화기법’강의시간에 행해진 실제 토론 활동과 토론 대화 진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들의 토론은 현재 미국의 대학간 토론대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2000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도 채택한 CEDA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시간관계상 토론 참가자들의 입문과 교차조사, 반박에 할애하는 시간은 조금 조정하였다. 또 토론이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을 마련, 참관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실제적인 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토론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기르기 위한 방안과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과정에 필요한 토론 전략을 밝히고자 한다.

## II. 토론 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 1. 토론 능력의 개념

토론은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언어 행위가 아니다. 토론자들이 대립하는 상대방과 역동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옹호 또는 반박을 하고, 그 반박에 대해 다시 옹호하면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대화양식이다. 따라서 토론에서의 능력은 상호교섭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철성 (1997)에서는 “대인 의사소통 능력은 정도의 문제로서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달성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인지 기술과 행동 기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토론 능력도 인지적 요소 뿐만 아니라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 대인이나 집단간 의사소통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토론 능력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주어진 문제에 관한 인지적 지식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논쟁을 하고,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 2. 토론 능력 구성요소

토론 능력의 구성요소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토론 활동을 통하여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실제 토론 상황을 관찰, 토론 능력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토론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는 표현 능력, 자료분석 능력, 논증 능력, 듣기 능력, 조정과 협상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토론 실행 과정에서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활용된다.

### (1) 표현 능력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말하기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논리적 언어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젊어서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스크린을 누비며 몸으로 익힌 대중과의 소통능력을 하루 아침에 배울 수는 없다. 그러나 1985년 11월 고르바초프와 첫 미 소 정상회담을 갖기 전 고르바초프로 분장한 보좌관과 수 차례에 걸쳐 모의회담까지 한 그 자세는 배우고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논제에 대해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 자료분석 능력

토론의 시작은 논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쟁점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자신이 사용할 근거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토론을 잘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이 없고, 설령 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근거가 될 만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학생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이유를 들었는데, 임신으로 여성이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고 이로 인해 승진과 기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아이를 낙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논제에 관련해서 올바른 자료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자기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3) 논증 능력

논증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득이다. 토론에서 논증 능력은 설득력 있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반박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일정한 견해를 남과 공유하여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청자에게 새로운 견해를 도입,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박을 당하기 쉽고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부통령 후보 페일린이 CBS 등 미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주지사로서 있는 알래스카주가 러시아와 가까워 외교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빈축을 산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알래스카주와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을 들어 자신의 외교적 경험을 주장한 부적절한 논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설득에 있어 논리성은 기본이다.

#### (4) 듣기 능력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근거는 타당한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잘 들어야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자신이 할 말에 집중하느라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바람에 토론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반박을 할 때 제대로 못한다거나, 교차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사람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 (5) 조정과 협상 능력

협상 능력은 협상자의 친화력과 경력, 경험에서 나오게 된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절충함으로써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구나 혼자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타협의 자리로 이끌어서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많이 얻어내는 협상능력이다.

토론은 토론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갈등과 분쟁을 해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데 조정과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을 통해 찬성과 반대로 양측의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조정과 협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3. 토론 전략

토론은 다른 대화와는 달리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있

으므로 토론 참가자들은 이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부당함을 반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전략들을 마련, 대화 진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발화 내용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3.1 준비단계에서의 전략

##### (1) 규칙을 준수하며 말하기

토론에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규칙 준수는 토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의무이다. 그 중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발언의 순서와 시간이다. 그만큼 토론자가 발언 순서를 어기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토론은 동일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기회 균등의 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자신의 발언 순서와 주어진 시간 등 미리 토론의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사전에 발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연습해 봄으로써 분량이나 발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2) 감정이입적 말하기

감정이입적 말하기란 청자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여 청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토론은 의견 대립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에도 격앙되고 흥분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론 후에도 서로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토론자가 격앙되거나 흥분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토론이 감정적으로 대립됨으로써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절제된 감정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적 말하기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역지사지적 말하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자기 주장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호소력도 높아지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먼저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분석과 조사를 한 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의 장 단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논제에 대해 찬 반 양측의 논리를 모두 조사 분석하여 자신의 논리로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양측의 이해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짐작해 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종합적 추론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책임감 있게 말하기

토론자에게 정직성과 책임감은 기본이다. 토론자는 조작되고 왜곡된 증거를 토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연구 조사해야 한다. 말을 할 때 신빙성 있는 최신자료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자기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증을 위해서는 논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 증거자료로 실례, 통계, 자료 등의 사실적 증거와 정황적 증거,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 관찰자의 증언 등의 의견적 자료를 들었을 때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출처의 명확성을 요구받았을 경우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예들은 학생들이 자기 주장의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들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용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토론자의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2001년인가? 시드니에 있었을 때 백팩커 여성을 강간하는 중국인에 대한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다.”

“얼마전에 ‘외모가 인생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 리서치 조사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등

3.2 실행단계에서의 전략

실행단계는 토론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입론, 상대방 입론에서 나타난 논리적 허점 등을 심문하는 교차조사, 상대방이 제시한 모든 주장과 교차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요약, 지적하는 반박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입론과정에서의 전략

① 논제 설정 배경과 개념 정의를 한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몰입교육이란 영어 과목 이외의 수학, 과학 등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② 전체적인 자기 주장의 요지를 먼저 말한다.

(예) 헌법 제 25조는 공무원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합니다.

③ ‘왜냐하면’을 사용하여 자기 주장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

(예) 저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중략).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질서 있는 인터넷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④ 문제를 제기하되 그 해결책도 제시한다.

(예) 성매매 합법화가 합리적 대안일 수 없는 이유는 첫째,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성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술이나 전문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이나 주변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폐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2) 교차조사과정에서의 전략

<교차조사자의 전략>

① 예/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A: 재벌, 유명 연예인, 고위공무원 등 공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B: 네, 맞습니다.

A: 앞에서 흉악범들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공인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B: 네, 맞습니다.

A: 흉악범들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B: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상대방에게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A: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B: 네.

A: 원치 않는 임신, 장애를 가진 아이 등을 낙태하는 것이 잘 한 것입니까?

B: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③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까지 예상하고 질문해야 한다.

A: 영어 조기교육을 올바른 시기에 실시하면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서 영어를 쉽

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B: 네.

A: 10년 전에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올바른 시점이 아니라서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긴 건가요?

B: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라 생각합니다.

A: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교차조사자의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

① 교차조사자에게 반문하는 형식을 빌려 교차조사자가 거론한 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반박한다.

A: 운하의 건설로 제방시설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B: 네, 맞습니다.

A: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여름철 상습 침수로 피해가 많았으나 운하 건설 후 10년 간 단 한 차례의 홍수피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B: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운하의 범람과 제방의 파괴로 대홍수 피해를 입게 된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지요?

② 상대 의견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박한다.

A: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B: 네.

A: 그렇다면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에만 의존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B: 물론 현재 공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생략)

(3) 반박과정에서의 전략

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짧게 반박한 후 자기 주장을 전개한다.

(예) 서 반대측 입론자께서는 국제 여성 성착취 반대 협회의 주장을 근거로 성매매 합법화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성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